

성역할 특성의 전환이 호감변화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윤 유 경 · 채 지 영
공군사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성역할 특성의 전환이 호감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61명의 대학생이 성역할 전환이 제시된 대본을 평가한 결과, 남성의 성역할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변화한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호감 증가가 나타났으며,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변환된 경우는 가장 큰 호감변화의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전환된 경우 남성은 가장 큰 호감의 증가를 보인 반면, 여성의 성역할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된 경우는 남성에게 가장 큰 호감의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성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성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은 보다 더 성유형화된 여성을 좋아하며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에 대해 보다 성역할에 자유로운 대인지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연예인 중에는 우리의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는 우리사회의 반영일 뿐 아니라, 대중의 호감도에 가장 민감하다는데서 이러한 캐릭터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임정빈·정혜진, 1997).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캐릭터나 상황은 대중매체 뿐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전통적인 성역할만으로는 적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융통적인 성역할은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 호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성역할의 전환을 대인지각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씩씩하고 진취적인 줄만 알았던 어떤 남성에게서 어느 날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면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상황이 여성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남성과 똑같은 호감변화가 일어날까?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역할과 호감과의 관계는 성에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반영한다. 즉,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특성이 강화받는지 시사한다. 따라서 성역할과 호감과의 관련은 우리 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며, 우리 사회의 준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성차가 있다는 점에서, 성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srochers, 1995; Lindner, Ryckman, Gold & Stone, 1995).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배적인 남성과 소극적인 여성이 소극적인 남성과 지배적인 여성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strich, Feinstein, Kidder, Mareek & Pascale, 1975). 즉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성이 높은 사람을,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성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다.

남성에 대해 남성성이 선호되는 것은 여성적인 특성보다 남성적인 특성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기 때문이며(Bem, 1977; Hoffman & Fidell, 1977; Wetter, 1975),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적 긍정적 평가가 남성성과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성성과 그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이 적고 일반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양성적인 남성들은 남성적으로 성 유형화된 사람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m, 1977; Wetter, 1975), 이는 남성의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을 묘사하

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은 여성성이 높은 여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대생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이상적인 남성상 만큼 남성적이었다(Gilbert, Deutsch, Strahan, 1978). 물론 남자들도 유능하고 남성적인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대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증거도 있다(Spence & Helmreich, 1972). 유능하고 남성적인 흥미를 가진 여성들은 타인에게 높이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특성이며, 더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연구에서는 여성성이 높은 여성을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ence, Helmreich & Stapp, 1975a).

90년대 중반이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과 호감의 관계에 대한 성차 연구를 보면(Desrochers, 1995; Lindner, Ryckman, Gold & Stone, 1995), 남녀 양성 모두는 신체적으로 남성적인 체격을 가진 남성과, 양성적인 체격을 가진 여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에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적인 남성을, 여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사람인 경우 성 유형화된 여성을, 비전통적인 사람인 경우 양성적인 여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시간에 따른 남성성과 여성성의 추이를 성별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Twenge, 1997), 여성은 남성성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여성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결과로 시간에 따라 여성에게는 전형적인 여성성이 적응상 문제가 나타난 반면,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적응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성역할이 사회의 적응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면, 현 사회에서 선호되

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논의는 현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특성이나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성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보도나, 대중문화에 나타난 남성 같은 여성, 여성 같은 남성 캐릭터의 등장은 여러 가지 시점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윤유경·채지영, 2000), 현재 우리나라 10대들이 선호하는 연예인에 나타난 성역할 특성은 남성 연예인의 경우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순으로, 여성 연예인은 여성성, 양성성, 남성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연예인의 양성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여성연예인의 여성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하였다. 이는 양성적인 남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적인 여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호감을 가짐을 나타낸다.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에 나타난 성역할 특성이 남성 연예인은 양성성, 여성 연예인은 여성성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양성성에 대한 요구가 먼저 다가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의 30대가 10대 때 좋아했던 연예인과 지금의 10대가 현재 좋아하는 연예인의 성역할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지금의 10대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지금의 30대가 10대 때 좋아했던 연예인보다 남성 연예인은 양성성, 여성 연예인은 양성성과 여성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대중문화에 나타난 캐릭터 분석이기는 하나, 시대와 사회에 따라 어떠한 성역할이 성별에 따라 선호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성역할의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때때로 여성이지만 씩씩함과 대범함을 발휘해야 하며, 남성이지만 꼼꼼함과 배려,

섬세함을 보여야 한다.

성 유형화된 성역할의 수행은 현대사회에서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다.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고정적인 성 유형화는 더 이상 융통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역할의 전환은 기존의 성역할 도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인지각이나 호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역할과 호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성역할 전환이 호감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성별에 따라 달라짐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성차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Desrochers, 1995; Lindner, Ryckman, Gold & Stone, 1995).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의 분석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역할 선호경향 추이를 탐색하고 미래의 성역할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 연구는 성격특성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대인 이미지 전략이나 캐릭터 창출, 소비자-광고 전략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대와 S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성역할이 전환된 대본을 제시하였다. 이중 대본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거나, 대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10명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161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것이 최종 분석에서 사용되었고 이중 남학생은 77명, 여학생은 84명이었다.

2. 조사내용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 인물에 대한 성격 기술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였다. 지시문에서는 본 연구가 특정 인물의 성격에 대한 호감을 알아보려는 연구라고 알려주었고, 실제적으로는 성역할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루어진 대본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부록 1).

성역할 묘사에 사용된 단어들은 정진경(1990)이 제작한 한국성역할검사(KSRI)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40개를 사용하였다.

성역할 기술은 특정 인물에 대해 남성성의 경우 남성성을 표현하는 단어 8개로, 여성성의 경우 여성성을 묘사하는 단어 8개로 대본을 구성하였고, 양성성은 양성의 특성을 묘사하는 남성성 4개 단어와 여성성 4개 단어를 혼합하였다. 성역할을 상징하는 대본을 8개의 단어로 구성한 것은 단기 기억의 평균용량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수의 단어를 한 번에 제시하면, 처음이나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특징이 다른 단어 보다 피험자의 기억에 영향을 줄 것이며, 너무 적은 단어 수는 성역할보다 단어 자체에만 피험자가 주의를 기울일 우려가 있다.

먼저 피험자는 특정 남성과 여성을 묘사하는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대본을 각각 읽게 되고, 이후는 성역할 특성이 이전과 일치했을 때와 불일치했을 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제시받았다. 따라서 피험자는 처음엔 특정 인물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 정도를 표시하였고, 이후는 이 사람에게

같은 성역할이나 다른 성역할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호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시하였다. 호감정도의 표시는 7점 척도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시 순서에 따라 호감정도의 평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역할 특성의 제시 순서는 counter balancing 하였으며, 사용된 단어도 특정 단어가 특별히 더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 횟수를 균등히 배분하였다.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전공자 2명이 문항의 내용과 문항 배열을 검토하였다. 대본의 신뢰도는 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85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성역할에 대한 호감의 성차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성역할에 대한 호감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남성에 대한 성역할의 호감

	평균(표준편차)		
	남	녀	t
남성성	5.44(1.12)	5.02(1.04)	2.44*
여성성	3.68(1.33)	2.78(1.27)	4.40***
양성성	4.77(1.27)	4.84(1.26)	-0.33

* P < .05 *** P < .001

표 1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성역할 호감은 양

성 모두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의 순이었다. 남성 성역할에 대한 호감의 성차는 남성성($t=2.44$, $P<.05$), 여성성($t=4.40$, $P<.001$)에서 나타났는데, 남성의 남성성은 여성($M=5.02$, $SD=1.04$)보다는 남성이($M=5.44$, $SD=1.12$), 남성의 여성성은 여성($M=2.78$, $SD=1.27$) 보다는 남성($M=3.68$, $SD=1.33$)이 더 많은 호감을 표시하였다. 이는 남성은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여성보다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의 남성성에 대해 여성보다 높은 호감을 보인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지만(Bem, 1977; Wetter, 1975), 남성의 여성성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호감을 보인 것은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평가가 여성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여성에 대한 성역할의 호감

	평균(표준편차)		
	남	녀	t
남성성	5.99(1.13)	4.70(1.12)	6.52***
여성성	3.57(1.03)	4.76(1.03)	-6.01***
양성성	4.51(1.43)	5.83(0.81)	-7.19***

*** $P < .001$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성차가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여성성에 가장 많은 호감을 보인 반면, 여성은 여성의 양성성에 가장 많은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의 성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여성성은 여성($M=4.70$,

$SD=1.12$)보다는 남성($M=5.99$, $SD=1.13$)이, 여성의 남성성은 남성($M=3.57$, $SD=1.03$)보다는 여성($M=4.76$, $SD=1.03$)이, 여성의 양성성은 남성($M=4.51$, $SD=1.43$)보다는 여성($M=5.83$, $SD=0.81$)이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여성의 여성성이 호감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반면, 여성은 여성의 남성성이 호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성유형화된 여성을 좋아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덜 고정형적인 여성에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가 양성성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표 3), 남성성에 대해서는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거나,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호감점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여성성은 매우 낮게, 남성의 남성성은 매우 높게 평가받는 것에 기인된 것이다.

표 3.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 변화

	평균점수의 변화(차이점수)	
	남성에 대해	여성성에 대해
남성성→여성성	5.22→5.61(0.39)	4.19→4.50(0.31)
남성성→양성성	5.22→6.04(0.82)	4.19→5.39(1.20)
남성성→남성성	5.22→5.36(0.14)	4.19→4.62(0.43)
여성성→남성성	3.22→5.03(1.81)	5.28→4.78(-0.50)
여성성→양성성	3.22→5.03(1.81)	5.28→5.18(-0.10)
여성성→여성성	3.22→4.19(0.97)	5.28→5.64(0.36)
양성성→남성성	4.81→5.11(0.30)	5.20→4.52(-0.68)
양성성→여성성	4.81→3.68(-1.13)	5.20→5.79(0.59)
양성성→양성성	4.81→5.48(0.67)	5.20→5.37(0.16)

한편,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된 경우가 가장 많은 호감의 증가(차이점수=1.2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많은 호감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의 양성성이 여성성보다 더 호감을 받는 것은 표 3에 나타났듯이, 여성의 양성성에 대한 평가가 여성들에게 매우 우호적이라는 데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3.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의 성차

남성의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는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전환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7.06, P<.001)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의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나타났다.

표 4. 남성에 대한 성역할 전환의 호감변화

	차이점수 평균(표준편차)		
	남	녀	t
남성성→여성성	0.28(1.56)	0.50(1.63)	.84
남성성→양성성	0.63(1.01)	0.98(0.97)	2.24*
남성성→남성성	0.11(1.16)	0.15(1.21)	.20
여성성→남성성	1.63(1.73)	1.98(1.29)	1.46
여성성→양성성	1.63(1.73)	1.98(1.29)	1.46
여성성→여성성	0.84(1.11)	1.09(1.27)	1.32
양성성→남성성	0.42(1.39)	0.17(1.20)	-1.12
양성성→여성성	-1.03(1.37)	-1.21(1.31)	-.82
양성성→양성성	0.59(1.17)	-1.21(1.31)	.79

* p < .05

표 4에 따르면 남성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된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많은 호감 변화를 나타냈다(t=2.24 P<.05). 이는 남성의 양성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에게 남성성과 함께 공존하는 여성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성역할 전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8.49, P<.001).

표 5. 여성에 대한 성역할 전환의 호감변화

	차이점수 평균(표준편차)		
	남	녀	t
남성성→여성성	1.77(1.71)	-1.02(1.53)	-10.94***
남성성→양성성	1.06(1.24)	1.32(0.94)	1.47
남성성→남성성	0.49(1.37)	0.36(0.95)	-.67
여성성→남성성	-1.67(1.73)	0.58(1.77)	7.64***
여성성→양성성	-1.22(1.68)	0.92(1.31)	9.06***
여성성→여성성	0.32(0.86)	0.39(0.96)	.46
양성성→남성성	-0.85(0.95)	-0.53(0.99)	2.08*
양성성→여성성	1.24(1.37)	-0.01(1.03)	-6.58***
양성성→양성성	0.38(1.30)	-0.04(1.04)	-2.26*

* p < .05 *** p < .001

먼저 여성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전환된 경우, 남성은 호감이 증가한 반면(M=1.77, SD=1.71) 여성은 호감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M=-1.02, SD=1.53). 이와 반대로, 여성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된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여성성을 남성(M=5.99, SD=1.13)이 여성(M=4.70, SD=1.12)보다 더 호감을 갖는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성유형화된 여성을 선호하므로 여성의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의 전환이나 그 반대의 현상은, 여성의 여성성에 대한 남성의 높은 호감을 반영한다.

여성이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이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 남성($M=-1.22$, $SD=1.68$)보다 여성($M=0.92$, $SD=1.31$)의 호감이 증가한 반면, 여성의 양성성이 여성성으로 변화된 경우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역시 여성이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 여성에게 새로운 남성성의 등장이 여성에게는 호감을 주는 반면, 남성에게는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즉 성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유형화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이 양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성차가 나타났다($t=2.08$, $P<.05$). 여성이 양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 여성($M=-0.53$, $SD=0.99$)보다 남성($M=-0.85$, $SD=0.95$)이 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여성성이 감소한 것으로, 남성에게서 여성의 여성성에 대한 높은 평가와 남성성에 대한 낮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를 모든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 위해, 성역할 전환에 따른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증해 보았다. 따라서 성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모든 경우도 검증의 대상이 되었는데, 다른 경우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이 양성성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호감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양성성에 대해 여성은 호감점수가 절대적으로 높는데 비해($M=5.83$, $SD=.81$), 남성은 여성의 양성성 점

수가 평균을 약간 상회하므로($M=4.51$, $SD=1.43$), 점수 변화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논 의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성역할에 대한 호감지각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은 양성 모두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 순이었으며, 남성의 남성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남성의 여성성도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남성의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여성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남성의 남성성은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이 되어 높은 호감을 받는 것이 예측되나(Bem, 1977; Hoffman & Fidell, 1977; Wetter, 1975), 남성의 여성성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호감을 보인 것은 다소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남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여성성은 남성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Bem, 1977; Wetter, 1975).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평가가 남성이 여성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것은, 남성들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남성들의 표현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욕구가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여성의 여성성에 가장 많은 호감을 보인 반면 여성은 여성의 양성성에 가장 많

은 호감을 보였다. 이는 남성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여성성과 관련이 있으나, 여성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여성성이 높지 않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ilbert, Deutsch & Strahan, 1978). 따라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시각에 여성성이 호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여성에 대해 덜 성 고정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 변화가 양성성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한 결과, 남성의 성역할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거나, 여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된 경우가 호감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남성의 여성성이 낮은 호감을 받는데 비해, 남성의 남성성은 높은 호감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된 경우에 호감 증가가 가장 컸으며 ($M=1.19$, $SD=1.40$), 이는 여성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변화된 것보다($M=0.31$, $SD=1.40$) 호감 변화의 폭이 컸다. 남성은 여성의 여성성에 가장 많은 호감을 보이지만, 여성은 여성의 양성성에 가장 많은 호감을 보인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변하는 것보다,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변화하는 것에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성의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 변화의 성차는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나타났다. 남성의 성역할이 남성성에서 양성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호감 증가의 폭이 더 컸다. 이는 남성의 양성성에 대한

여성의 높은 호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다운 남성에게 남성성과 공존하는 여성성이 나타났을 때 그 남성에게 대한 태도변화의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는 여성은 남성에게 대해 남성성과 더불어 관계 지향적이고 표현적인 여성적 특성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의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은 여성성이 높은 여성에게, 여성은 양성성이 높은 여성에게 높은 호감을 보이는 사실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비교적 성역할과 호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bert, Deutsch & Strahan, 1978; Desrochers, 1995; Lindner, Ryckman, Gold & Stone, 1995).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호감에서 성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해 남성은 성 고정적인 여성을 좋아하였다. 이는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변화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을 양성 특성을 가진 통합된 존재로 기대한 것 보다는 여성을 여성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은 양성적인 여성을 가장 좋아한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성이 보는 여성과 여성이 보는 여성이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대중매체나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은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더 여성스러워지는지, 그리고 남성적인 여성은 왜 남성에게는 여성들에게 만큼 인기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성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직 우리 사회의 성에 따른 고정관념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단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의 성역할에 덜 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아직도 성 고정형적인 시각이 강하다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강화라는 입장에서든 어떠한 특성이 여성에게 증가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남성에게 인기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인기있는 남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성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 전환에 따른 성차의 발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는 수줍어하던 남성 연예인이 운동을 잘하거나, 남성성이 강한 댄스그룹이 자상하게 아이를 돌보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전자는 남성의 성역할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후자는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전환되어 양성성으로 통합된 경우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인 남성의 성역할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어 양성성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큰 호감변화가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인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전환되어 양성성이 나타난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호감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적용됐을 때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임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역할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전환되어 양성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여성에 대해 여성은 호감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호감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은, 대중매체나 광고의 캐릭터 창출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

인지각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성별에 따른 성역할의 캐릭터는 호감이 서로 다르며, 성역할의 전환은 지각의 대상과 주체에 따라 그 방향과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상 성역할 전환에 따른 호감 변화를 대인지각의 차원에서 성차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간 비교는 성역할과 호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역할이 발달단계에 따라 전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령간의 비교나 시간에 따른 추적 연구도 성역할 전환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성에 따른 바람직성이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적절한 대안적 개념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대안적 개념이 통용되기에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개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성별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역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시, 남성, 여성, 양성 및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유사한 단어의 조합으로 그 개념이 구성되어 있어, 용어사용에서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의 연

구에서는 다른 용어의 사용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째, 본 연구는 성역할 묘사를 위해 성역할 검사에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경우의 조합으로 대본은 만들었다. 본 검사가 혼입 변인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물의 묘사나, 극적인 특성의 기술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 묘사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일반화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과 관련된 호감변화에만 분석의 관심을 두다보니, 연구결과의 전개가 다소 추론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제한이 있었음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김광열 (1997). 대중 소비사회가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유경, 채지영 (2000). 10대의 선호연예인에 나타난 성역할 특성. 미간행.
- 임정빈, 정혜진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 최윤미 외 공저 (1998).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 홍순정 외 공저 (1998). 여성심리학. 교육과학사.
- Bem, S. L. (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6-205.
- Costrich, N., Feinstein, J., Kidder, L., Mareck, J., & Pascale, L. (1975). When stereotypes hurt: Three studies of penalties for sex-role revers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520-530.
- Cristenson, P. G., & Roberts, D. F. (1990). *Popular Music in Adolescent Development*. Washington, DC.: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ce Development.
- Desrochers, S. (1995). What types of men are most attractive and most repulsive to woman. *Sex Roles, 32*, 375-391
- Gilbert, L. A., Deutsch, C. J., & Strahan, R. F. (1978). Feminine and masculine dimensions: typical, desirable, and ideal woman and man. *Sex Roles, 4*, 767-778.
- Hoffman, D., & Fidell, L. (1977). *Characteristics of Androgynous, Undifferentiated, Masculine and Feminine Middle Class Woma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August.
- Jung, C. G. (1953). *Anima & Animus,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 III*, N.Y.: Ballingen Foundation.
- Kaplan, P., & Sedney, M. A. (1994). *Psychology and Sex Role*. Little, Brown and Company.
- Komarovsky, M., & Mayer, E. R. (1984). Consistency of female gender Attitudes: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62*,

1020-1025.

- Linder, M.A., Ryckman, R. M., Gold, J. A., Orlofsky, J. L.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sex-typing, and sex-role ideology as predictors of male-female interpersonal attraction, *Sex Roles, 8*, 1057-1073.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California: Sage.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Who likes component woman? Competence, sex-role congruence of interests, and subjects' attitude toward women as determinant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 197-213.
- Spence, J. T., & Helmreich, R. L., & Stapp, J. (1975a). The personal attribute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of Psychology, 4*, 127.
- Stone, W. F. (1995). Traditional vs nontraditional woman and m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ities and physiques of ideal women and man. *Sex Roles, 32*, 675-691.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meta analysis. *Sex Role, 36*, 305-319.
- Wetter, R. E. (1975). *Level of Self-esteem Associated with Four Sex-role Categori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August.

【부 록】 남성의 남성성 성역할 전환 예시

** 아래에는 어떠한 남성의 성격을 묘사하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별 로 왼쪽에 묘사된 남성에 대해 가상의 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물에 대한 여러분의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남성이 이후 오른쪽에 나타난 3개의 문장과 같은 면이 각각 발견됐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게 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1-1.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썩썩하고 의욕적이며 야심적이고 근엄할 뿐 아니라, 어질고 섬세하며 친절하고 온화한 양면이 함께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전혀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I-----I-----I-----I-----I-----I-----I

1 2 3 4 5 6 7

1. 그는 믿음직스럽고 과묵하며 강하고 남성적일 뿐 아니라, 자신감과 박력이 있고 털털하며 독립적이다.

전혀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I-----I-----I-----I-----I-----I-----I

1 2 3 4 5 6 7

1-2. 그를 알게 될수록 그는 전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깔끔하고 부드러운데 상냥하고 감정이 풍부할 뿐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하며 인정 많고 다정다감한 사람인 것 같았다

전혀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I-----I-----I-----I-----I-----I-----I

1 2 3 4 5 6 7

1-3. 최근에 만난 그는 역시 대범하며 신념과 의지력, 집념이 강할 뿐 아니라, 의리와 지도력, 결단력이 있고 모험적이었다.

전혀 호감이 없다 보통이다 매우 호감이 간다

I-----I-----I-----I-----I-----I-----I

1 2 3 4 5 6 7

Effect of the sex-role shift on liking change

You-Kyung Yoon · Gee-Young Chae

R.O.K. Air Force Academy Ewha Woman's Univ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shift sex-role could affect on liking change of the person. 161 undergraduate students evaluated sex-role shifts in script. When a man's sex-role shifted from masculinity to androgyny, female subjects increased liking for him more than male subjects did. When a woman's sex-role shifted from masculinity to feminine, male subjects showed the biggest positive change for her. Whereas, when a woman's sex-role shifted from feminine to masculinity, male subjects decreased the liking for her. As the result, sex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for the man's sex-role were not big but the sex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for the woman's sex-role were large. This implied, males preferred sex-role stereotyped women than females did sex-role stereotyped men.